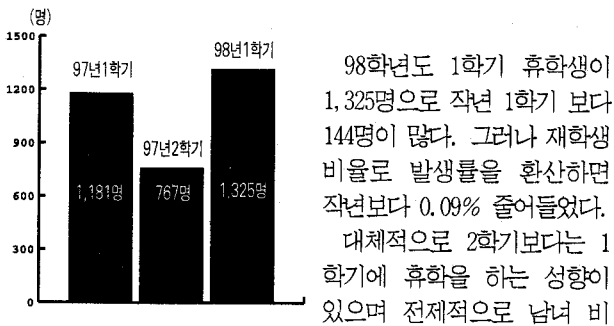


그래픽 뉴스

휴학생 지난 학기보다 558명 증가



98학년도 1학기 휴학생이 1,325명으로 작년 1학기 보다 144명이 많다. 그러나 재학생 비율로 발생률을 환산하면 작년보다 0.09% 줄어 들었다. 대체적으로 2학기보다는 1학기에 휴학을 하는 성향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녀 비율은 5대 1 정도다.

여학생의 경우 3학년 휴학생이 가장 많으며 1학년이 가장 적다. 남학생의 경우는 1,2학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발생률 = 휴학생 / 재학생)

경희, 그 한 주의 역사



1956. 7. 30

본관 석조전 준공

1976.7.10~8.10

본교 휴양소인 하조대 첫 개장

▲ 대학본부 기공식

1981. 8. 2 월드컵 게임 태권

도 부문에서 본교 재학생 2명 금메달 획득

1983. 7월말 학사경고 1천 1백 87명으로

전교생의 8.56%를 기록함.

1996.7.20~8.2 '96 교육 개혁 박람회 참가

<1면에서 이어짐>

3학점의 강의를 수강할 경우 총 16만5천원의 등록금과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수강료는 학칙으로 당해 학기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된다.

그러나 서울지역 사립대학 대부분의 3학점 계절학기 강좌의 수강료가 보통 16만원내외인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학교의 계절학기 등록금이 타대학에 비해 비싼편은 아니다.

그동안 계절학기는 학점이 부족해 졸업을 못하는 학생들의 전유물이라고 할 정도로 점수가 후한 반면 수업의 질은 매우 낮았다.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3,4학년이기 때문에 교수들은 졸업에 유리한 학점을 주는 교수도 있었다 한다. 그래서 이번 계절학기에 수원캠퍼스는 정규학과와 같이 B+이상 학생을 40%로 제한하는 학점 표준화 제도를 적용하였다. 이 제도에 따라 교수가 학생들의 성적을 입력할 때 학생의 40%가 넘게 B+이상인 자동적으로 그 이후 입력작업은 진행되지 않는다. 특수한 경우에는 수업과 협의하여 입력이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이 계절학기 등록금에 불만을 나타내는 이유가 이러한 인식때문만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계절학과 관련, 불편한 학교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학생도 적지 않다.

계절학기가 끝난 후 성적확인방법을 모르는 학생도 있었으며 성적확인시에 학과나 수업과에 문의해야 하는 점에 불만을 나타낸 학생, 정규학과와 같이 성적을 집으로 발송했으면 하는 의견들이 그 예이다.

앞으로 대학에서의 학기는 복수전공과 맞물려 다학기화되어 갈 것이며 계절학기는 일종의 과도기적 모델이다. 이러한 계절학기가 계속 부실하게 운영되고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학기제도는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계절학기가 바르게 자리잡기 위해서 학점표준화의 도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맞추어 계절학기에 대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인식 변화, 학사관리에 대한 편의 제공등은 해결해야 했다. 또한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키고 계절학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의 평가제를 도입하고 강의 계획서의 발행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고세희 김윤택 기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편집인	조정원
주 간	최성진
편집장	최수정
인쇄인	최영희
인터넷 대학주보	http://news.kyunghee.ac.kr
인터넷 전자메일	zpiknews@chollian.net khnews@unitel.co.kr
구독료 / 1년 1만원	구독문의 / 961-0093~0094

수원캠퍼스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중소기업청, 벤처기업 육성 위해 거액 지원

지난 6월 22일 중소기업청은 수원캠퍼스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기관(소장: 오환섭 교수)'으로 선정했다.

이로써 우리학교는 향후 3년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게 되며, 이미 올해 1차분으로 4억 7,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창업보육 성적 여하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계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우리학교를 포함, 연세대, 동아대, 계명대 등 각 시도를 대표하는 14개 학교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되었으며, 특히 경기도 경우 도 내 15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바 있다.

한편 우리학교는 지난 97년 12월 정보통신부가 창업지원센터로 선정돼 향후 3년간 4억 5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간 우리학교는 창업지원의 범위를

정보, 통신 분야에 국한해 왔으나 이번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획기적으로 지원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처로 평가된다. 한편 창업보육센터는 창업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멀티미디어관 완공후 교육관 내부로 이전하게 된다.

연구처 전환과장은 "우리학교를 통해 인근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학교 시설들을 벤처기업 육성에 활용하게 된

다면 대·내외적으로 미치게 될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앞으로 10~20개 벤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며 방학이 끝나는 대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류지은 기자>

30일 우수 지원 시범학교 2차실사

오는 30일 정보통신부는 우리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지원 시범학교 2차 선정 실사를 할 예정이다. 시범학교는 경기도 내에서 1차 선정된 20개의 학교 중 3차에 거쳐 실시하여 선정하는데 우리 학교는 1차에 선정된 상태이다. 우수 지원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4년간 15억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우리 함께 "민통선 기행 떠나요"

자주 경의 민통선 답사 준비 위원회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1박 2일동안 민간통제선 기행을 떠난다. '우리 사는 이 땅의 아픔이 무엇인지 느끼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이번 기행에는 우리 학교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1일 오전 10시에 출발하여 임진각, 태평전망대, 고성정, 승일교등을 답사할 예정이다.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출발전까지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961-0650)로 신청하면 되며 회비는 3만 5천원이다.

중국 한국어학과 학생대상 한국어 연수

7월 24일 국제교육원(국교원) 영상강의실에서 '중국 한국어학과 대학생 초청 한국어 연수' 입교식이 개최되었다. 국교원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하게된 중국 한국어학과 학생들의 한국어 연수를 맡게 되었다.

한국어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중 이번 연수에는 북경대를 비롯한 8개 대학 25명이 참여하고 있다. 입교일부터 내년 1월 21일까지 6개월간 실시되는 연수의 교육 내용은 한국어, 한국의 역사, 정치, 민속, 경제, 민족의 뿌리, 고전 문학, 문화등이다.

이번 연수로 인해 대학생들을 통한 민간 차원의 국제 교류가 활성화와 우리 나라 학생의 중국 유학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명무실한 취업정보판



하여 학생회관 옆에 취업정보판을 설치했지만 관리 부서의 관리 소홀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쯤 열려진 문, 바람에 팔려 가는 오래된 취업

정보... 설치만 해 놓고 관리·운영되지 않는 취업정보판이 학생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개교 50주년 기념 엠블럼 및 슬로건 확정



▲ 개교 50주년 기념 엠블럼

6월 23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 종합기획 설명회'가 열렸다. 총장, 부총장,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

던 이번 행사는 개교50주년 엠블럼 및 표어현상공모 입상자 시상식을 시작으로 진행되었다.

엠블럼의 경우 우수작 없이 가작이 3편이었으며 표어 역시 우수작 없이 2편이 가작으로 선정됐다.

앞으로 우리 학교를 대표할 슬로건은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희"로써 과거 천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함에 있어 우리 경희가 새로운 천년의 새 이념과 문화를 여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포함하고 있다.

엠블럼 역시 천년을 향한 속도감있는

체과대 방중 경기 성적 '우수'

럭비, 하키,육상부 최고 성적 기록

체과대 선수들이 방학동안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우선 럭비부는 '제 9회 대통령기 전국 중별전승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서울로 류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우리 학교 럭비부는 결승전에 함께 오른 고려대를 21대 19로 꺾고 우승컵을 안았다.

이번 대회를 우승으로 이끈 안덕균 코치는 "IMF로 선수 스카웃이 더욱 힘들어진 상황에서 우승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열심히 땀 흘려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성남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제 41회 전국 중별 하키선수권대회'에서 하키부가

우승, 국내 대학중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리그전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우리학교는 한국체육대학교와 2승 1무로 동률을 이루었으나 골 득실차에서 앞서 우승했다.

한편 육상부 류수희(체육 3)안은 '제 52회 전국 남녀 대학대학 육상경기대회' 여자 800M, 1,500M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성남공설운동장에서 벌어진 이번 대회의 성적은 다음과 같다.

△남자800M 1위- 이재준(체육4) △여자800M, 1,500M 1위-류수희(체육3) △여자 1,100M 허들-우재은(체육3) △여자400M 3위-이윤경(체육2)

사회대 경영학부 마케팅경연대회 대상

사회대 경영학부는 4월 15일부터 5월 2일까지 삼성전자 주최로 실시된 '제 1회 전국 대학생 마케팅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해 삼성전자로부터 컴퓨터 20대, 프린터 5대를 기증받았다.

서울대, 연세대 등 전국 18개 대학이 참여한 이번 경연대회는 학생들이 마케팅 실무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의 구매와 인지도도를 향상시키는 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마케팅경연대회 대상 수상 기념 랩설 개관식

마케팅 경연대회를 준비한 조택연(경영 4)팀장은 "이번 경연대회를 바탕으로 하여 대외공모전, 기업과 연계하여 생산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마케팅 클럽이라는 활동 단체를 준비 중"이라며 "2학기에 활동을 하게될 마케팅클럽에 관심있는 학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 부품연구원과 연구협약

우리학교와 자동차 부품 연구원과의 '연구협력 협약 조인식'이 지난 6월 11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개최됐다.

박규홍 부총장과 최성규 자동차부품연구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조인식에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 및 교육을 위해 △자동차부품산업 기술분야 공동연구 개발 △기술정보의 교류 △연구인력상호교류 △양기관 실무협약에 따른 합작의 사항 등의 이행을 할 것을 약속했다.

초등교사 영어교과 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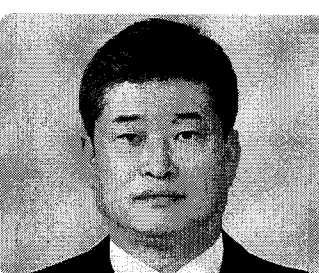
평생교육원은 수원시교육청이 위탁한 초등교사 영어교과 연수를 실시중이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는 8월 12일까지 18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강좌에는 수원시 초등교사 329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연수의 교과내용은 영어교수법, 말하기, 듣기, 읽기 교육용 초등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기초적 기능과 초등교육 교수법 등을 원인자 강사, 우리학교 외국어대 교수 등 30여명의 강사가 강의한다.

□ 치과대학팀 최유진(치대) 교수

"무조건 시작하려는 자세가 중요"



제1회 고대 홈페이지 경진대회에서 총장상을 수상한 최유진(치대 학장) 교수를 만나 보았다.

홈페이지를 정의한다면

홈페이지는 자신 또는 집단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집이다. 또 서로 대화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머지않아 일상 생활이나 기업 경영 등 모든 영역에서 필수

제1회 인력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총장상 수상자

□ 컴퓨터 동아리 CAPTIMA 황상철(산업공4)군

풍부한 데이터량과 그래픽이 비결



“모기와와 전쟁 속에서 진행된 한 달여간의 밤샘 작업이 가져다준 결과죠.”

졸업하기 전 화과와 동아리에 의미 있는 선물을 선사하고자 산·공과 컴퓨터 동아리 CAPTIMA 친구들과 함께 출전하게 된 홈페이지 경진대회.

총장상 수상의 주인공인 황상철(산·공4)군의 수상 소감이다. 황군은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수상하게 된 비결을 풍부한 데이터량과 손수 제작한 그래픽이라고 털어놓는다.

또한 실용성에 초점을 두고 학과소개, CAD사용법 등 알찬 정보를 담은 것도 주효했다고 말한다.

이제 몇 달 후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게 되는 그는 대회에 쏟아부었던 열

정으로 컴퓨터 관련 분야에 새로이 도전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전산시설이 부족한 것이 안타깝다”며 못내 아쉬워하는 황군.

다가오는 정보화 시대를 맞아 황상철군과 CAPTIMA, 그들의 화이팅을 기대해 본다.

<이광호 기자>

고향골

캠퍼스 소식

서천골

의대 의료봉사활동 우리 학교 의과대학은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전북 임실에서 무료진료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활동에는 본과 2,3학년 학생들 10명과 레지던트 2명, 가정학과 교수 1명이 참여하였으며 임실군민 300여명이 진료를 받았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무리한 농촌일에 따른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 심전도 검사와 혈당검사, 소변검사 등을 통해 진단한 후 처방하였다.

김성철 국가대표로 발탁 우리학교 농구부의 포워드를 맡고 있는 김성철(체육 4)선수가 제 13회 세계남자선수권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었다.

이번 선발은 김선수의 정확하고도 빠른 판단력과 높은 득점률에 기인하며 김군은 대회 출전을 위해 26일 출국하였으며, 다음 달 9일까지 그리스와 아테네에서 세계대회 첫 경기를 갖게 된다. 이후 아시아 경기대회는 12월 6일부터 20일까지 태국과 방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고교생 외국어 경시대회 개최 '98 전국 고교생 외국어 경시대회가 지난 5월 24일 수원캠퍼스 중앙도서관 피스홀에서 개최됐다.

새로운 입시대책과 수원 개교 20주년을 앞둔 위상정립, 국제사회로의 발돋움에 위해 전국 규모로 치루었다.

총 4개 부문에서 치루진 이번 대회는 일반고 학생 101명, 외국어고 학생 95명이 참가했다.

산업대 앞 - 외대사이 인도 왕성 수원캠퍼스 사고다발 지역인 도예실습동 앞 도로에 사고 방지를 위해 인도가 들어섰다. 산업대 앞에서 외대까지 인도가 완성되어 도로 양쪽 모두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사회대와 학생회관 사이의 계단공사를 진행중이며 8월초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도예실습동이 9월 초 완성에 따라 유류공간으로 남을 산업대 지하 1층은 현재 동아리방공사를 계획중이며, 개강 이전 공사를 마무리 짓는다. 산업대의 공간 이동에 따라 산대 매점이 시정각설 앞으로 이주한다.